

이상한 교육, 교양의 이상?

프리드리히 슈바이처의 『기독교교양』 읽기

Friedrich Schweitzer, *Bildung* (2014)

개념잡는 초등 전과목 학습
EDUMOAS
스마트에듀모아

에듀테크

eduwill

ton
또 하나의 학교
에듀넷·타-클리어

EDUPLEX
자기주도학습
에듀플렉스
학생 맞춤형 매니지먼트를 제공합니다.

KG 에듀원
꿈을 이루어주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업

교원지원, 과제/제출, 평가, IT교육, 직무교육, 학생지원, 위업 자격증, 인태리어교육

인방에 끝내는 소방자격 온라인교육
에듀파이어



변질된 교육의 대안, 교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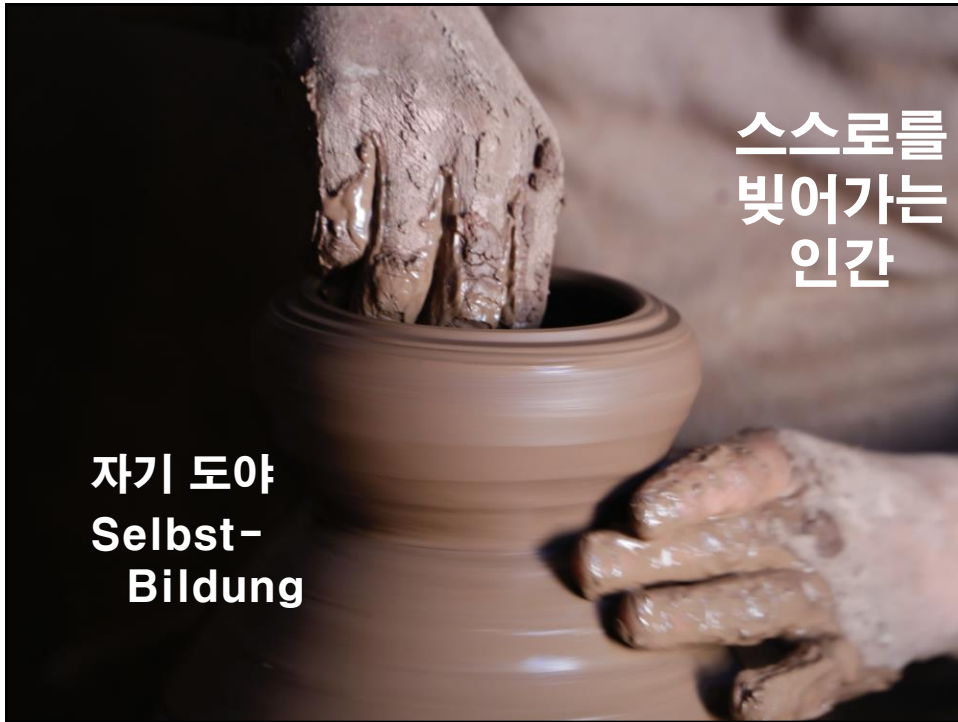
- 안 로스, 『빌동』

“좁은 세계관에 갇힌 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양의 힘이다!”

사랑과 우정, 여행과 자연처럼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교양이라는 마법

- 레네 레이첼 안데르센, 『빌동에서 배운다』

“빌동(Bildung)은 도덕적, 정서적 성숙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사회에서 번영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 삶의 길을 개척할 자율성을 가지는 동시에 문화와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빌동은 항상 개인적이고 독특하다. 빌동은 영어에는 없는 독일 단어로 우리에게 아직 낯설게 다가온다. 1770년대부터 독일 철학자들은 내면 발달의 세속적 형태로서 빌동을 탐구했고, 빌동은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스스로를
빚어가는
인간

자기 도야
Selbst-
Bildung

poliendos. Arbores fortasse nascuntur, licet aut steriles, aut
agresti foetu: equi nascuntur, licet inutiles: at homines, mihi
crede, non nascuntur, sed finguntur. Prisci mortales qui
nullis legibus, nullis disciplinis, uago concubitu uitam age-
bant in nemoribus, feræ uerius erant, quàm homines. Ra-
tio facit hominem, ea locum non habet ubi affectuum arbi-
trio geruntur omnia. Si forma faceret hominem, & statuæ
numerarentur in hominem genere. Eleganter Aristippus
Crasso cuidam ac diuiti roganti, quid utilitatis adolescenti
allatura esset eruditio, uel illud inquit, ne in theatro lapis
lapidi infideat. Venustè philosophus alter, Diogenes, ni-
fallor,

“인간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빚어진다.”

Menschen werden nicht geboren sondern **gebildet**.

에라스무스, “즉각적이고 자유로운 어린이 교육에 관하여”
(De Pueris statim ac liberaliter instituendis, 1529)

프리드리히 슈바이처의 Bildung [15]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우리는 어떤 희망
을 그리고 있는가?

교양 Bildung

교양은 종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종교를 배제한 교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종교(신학)의 도움이 꼭 필요한 문제의 등장 [20]

- 가장 큰 관심의 대상 : **근본주의**
 - 근본주의는 개인적 · 종교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 정치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 어떻게 근본주의에 대처할 수 있을까?
[종교의 도움을 받은 교양(교육)으로!]
 - **다종교 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갈등
- ◆ 그러나 교양을 말하면서 신학과 대화하는 것이 꺼려진다.
왜 그럴까?

[22~23]

**교육학의 우려 :
신학에 의한 식민화**
Theologische Kolonisier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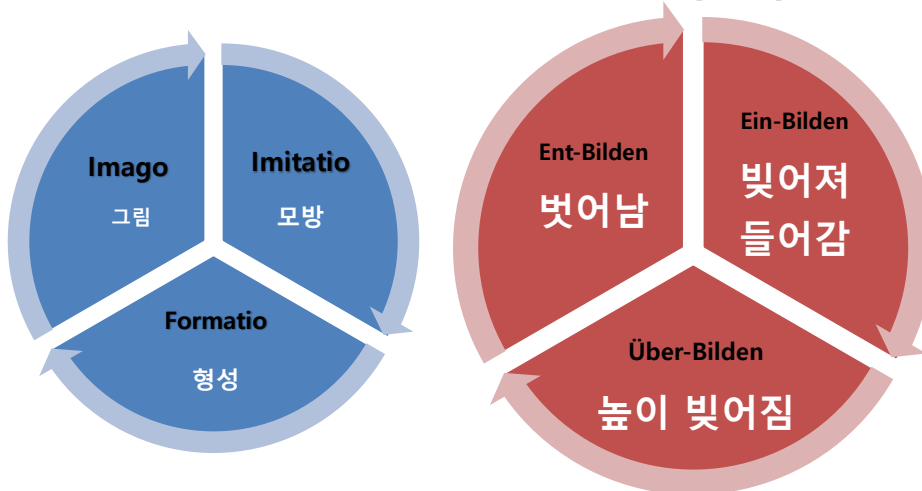
- 교양 개념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것을 되찾아오려고 하지 말자
- 교양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자

**신학의 우려
신앙의 교육학화**
Pädagogisierung des Glaubens

- 신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문제들을 함께 고민
- 교양 이해의 이상화 경계 신학과와의 대화

(우려를 넘어) 깨달음의 확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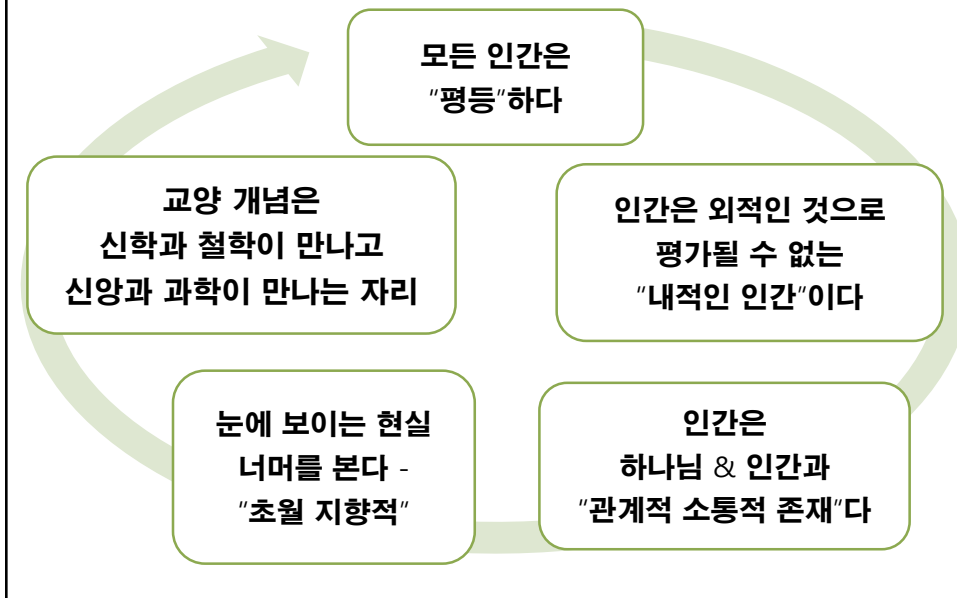
**교양 개념의 뿌리 :
중세 후기 기독교 신비주의** [37~39]



"하나님 형상Bild"(창1:26~27)

"그와 같은 형상Bild"으로 변화되어(고후3:18)

종교의 뿌리에서 나온 교양의 전제들



교양과 종교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지평을 찾아서 | 조직적인 접근 |

- 어떻게 교양(교육)을 논의해야 하는가?
오로지 **세속**의 관점, **계몽**의 관점으로만 논의해야 하는가?
- 앞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교양의 **목표**)
- 인간의 공존(共存)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가치와 윤리**)
- 왜 교양은 '~ 너머' 를 말하는가? (**내적인 인간**)
- 신앙은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가? (교양으로서의 신앙)
- 만일 신앙과 교양이 자기성찰적인 것이 된다면? (종교적 교양)
- 왜 오늘의 교양은 **다종교 상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다원성 능력)

교양실리주의 *Bildungsutilitarismus* 비판

“이런 실용주의적이고 상대주의적인 견해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그저 그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것**’ **너머의 가치를 묻는 물음**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는 결국 전체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요구가 **인간의 공존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 문제는 그렇게 과학기술과 경제의 요구에 의존하는 교양은 **절대로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계몽이 중요한 교양, 계몽의 대상 종교?

종교를 반대하는 계몽 Aufklärung gegen Religion

근본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계몽의 시도는
오히려 더 완고한 계몽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몽 Aufklärung in der Religion

종교 안에서 종교적 성숙, 종교적 판단 능력 확보
→ 보완적 사고 능력의 형성

종교를 통한 계몽 Aufklärung durch Religion

종교가 계몽의 주체. 실용주의적 인간 이해의
힘에 의존하는 미성숙에서 벗어남을 돕는다

포괄적 실천을 위하여

- 종교 없는 교양 없다!

종교는 오래 전부터 교양의 내용이다
다른 과목에서도 교양의 한 차원이다
교양의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화의 파트너다.

- 교양 없는 종교 없다!

종교는 개인이 자유로운 주체로 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종교는 종교적 성숙(계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양의 한계 확장 (Entgrenzung)

한계 설정 (Begrenzung) 위한 협력

Friedrich Schweitzer, Bildung (2014)

